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¹

곽금주² · 김의철³ · 박영신⁴

² 오산대학 유아교육과 · ³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⁴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문화 형성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중 하나로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 11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우울과 비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은 '주위사람 기대일치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 '주변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 '자기규제 효능감' 영역이었다. '자기규제 효능감'이 비행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영역이었다. 우울과 비행의 2개 요인(가벼운 비행, 심한 비행)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이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연령(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기는 삶의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중요한 전환기로 심리사회적 혼란의 시기로 보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아에 대한 정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성인으로 발달해 간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는 직업의 선택과 새로운 가족의 구성 및 사회적 관계의 형성 등 다양한 발달적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이 다양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김의철, 1997).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청소년의 발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부적응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급증하는 것으로 우울과 비행이 있다. 기분이 울적하다든지,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울 감정은 10세 정도의 아동기에도 경험되고 있으나, 그 빈도는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한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불안, 반항, 자학적 행동, 비행, 학교생활 문제, 학습의 어려움, 과활동성, 공격행동, 신체적 고통 등의 외적 다른 형태의 문제들로 표출되기도 한다(곽금주, 문은영, 1993). 또 청소년기에는 독립심이 커지면서 위험활동(음주, 약물남용, 흡연, 성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중에서는 곧 이것에서 벗어나는 청소년도 있지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Bandura(1986)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 환경, 행동의 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이 세 요인이 서로의 결정인자로 작용한다는 상호결정론을 주장하

1. 본 논문은 1997~1999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과제 ('한국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과 비교문화적 분석')의 1차년도 연구의 일부이다.

였다. 개인적 요인이란 인간이 지닌 능력으로 인지적 능력, 대리학습 능력, 자기조절능력, 자기반성 능력의 네 가지이다. 인지적 능력은 정보를 처리하고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대리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조절은 자기의 내적 표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자신에게 동기를 주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며, 자기반성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 자기개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았다. 자기효능감이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행동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달의 각 시기는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고 대처 효능감을 위한 도전을 가져다 준다. 특히 청소년기는 새로운 여러 도전에 노출되는 결정적인 시기로, 성인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숙달해야 한다.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들은 더 큰 사회로 그들의 활동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므로, 이 시기동안 청소년들이 개인 효능감을 발달, 연습시키는 방법이 이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위험과 도전을 성공적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은 이전의 숙달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개인효능감의 강도에 달려있다. 청소년기동안 비효능감을 지니게 되면, 스트레스와 역기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취약함을 보인다(Bandura, 1997).

한편으로 자기효능감은 자기규제 기제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기능수준에 통제력을 행사하며, 자기규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자기자신을 능력 있다고 판단할수록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 규제, 조절, 개입하게 된다. 자기규제 기제는 도덕행위에도 작용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내적 도덕적 표준을 설정하여 자신을 규제 및 제재한다. 자기규제에서 벗어난 내적 기준의 이탈은 도덕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허락하게 된다(곽금주, 1998).

도덕적 행위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은 그 행위보다는 도덕적 사고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합리주의적 편향과 방법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의 규제는 도덕적 추론 이상의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덕성에 관한 이론은 사람들이 도덕적 표준에 일치해서 살아가게 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표준(moral standards)이란 직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타인에 의해 모방된 자기 평가적 표준 등의 정보로부터 형성되며, 일단 형성되면 행동의 안내자이자 제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은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치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어떤 행동이 자기비난을 준다면 이는 도덕적 표준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이를 금하게 된다. 이때 자기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덕적 표준에서 이탈되는 기제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기제가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다. 이것은 해가 되는 행동자체에 대한 해석에 관여하여, 일단 그 행동을 정당화하고 나면 더 이상의 자기비난을 하지 않게 된다. 다음과 같은 하위 기제들이 이에 속한다.

첫째, 해가 되는 행동을 사회적 도덕적 목적에 맞추어 넣는 도덕적 정당화 기제가 있다. 일상생활의 많은 공격행동이 명예나 명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둘째, 이득이 되는 쪽으로 비교하는 기제로 더욱 비난받을 만한 행위들과 비교하여 이탈된 행위를 양호하고 해로운 결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행동과 그 결과에 관한 대리적 관계를 왜곡시킴으로서 와해가 일어날 수 있다. 책임을 전이시킴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독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Andrus, 1965). 따라서 자신이 그 행위의 실질적인 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자기비난도 적어 질 수 있다. 넷째, 개인이 행한 해로운 행동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 분산에 의해 모호해질 때 도덕적 통제력이 약해지게 된다. 즉 각 개인의 행동은 무해한 영향을 주나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그 책임이 분산되기도 쉽다(Kelman, 1973). 다섯째, 행위의 부정적 결과를 무시, 축소, 불신, 왜곡함으로써 자기비난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로운 행동을 가하는 대상에 관한 것으로, 가해자가 그들이 가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달라진다. 즉 타인을 한 인간으로 지각하게 되면 감정이입과 대리적 정서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인간이하라고 보는 경우는 이들에 대한 민감성도 적어지고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자기비난은 상대방 사람이 인간적인 속성이 부족하다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에 의해 무디어 질 수 있다(곽금주, 1998).

이와 같은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에 대한 연구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1996b)는 여러 상황과 대인관계에서 유해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 완곡한 언어 표현(euphemistic language), 이로운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책임의 전이(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행동결과에 대한 무시나 왜곡(disregarding or distorting the consequences of action), 비인간화(dehumanization), 비난의 귀인(attribution of blame) 등이 포함된다.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서 낮은 효능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Bandura, 등(1996a)에 의

하면 낮은 학업적 효능감과 자기규제 효능감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도덕적 제재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각된 자기 규제의 비효능감은 학업적 추구에 갈등을 일으키는 해로운 행동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청소년기란 생물학적인 변화 뿐 아니라, 학교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의 강도가 특히 중요하다.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변환기에서 새로운 환경요구와 심리 사회적인 변화에 대처하는데 요구되는 스트레스에 스스로 약하고 역기능적이라는 비효능감을 가질 수도 있다(Bandura, 1997). 따라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부적응 현상을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 중 일부로, 청소년의 부적응의 대표적인 현상인 우울과 비행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울과 비행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에 그 초점을 두었다. 우울과 비행을 설명하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이 연령(중, 고등학생)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서울과 근교, 3개의 중학교와 4개의 고등학교로부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30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불충실하였던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114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중학생 570명(남: 298, 여: 272), 고등학생 576명(남: 287, 여: 289)이었으며, 이들의 나이는 12세에서 19세 사이였다(평균연령: 15.3세). 본 연구는 곽금주(1998) 연구의 조사대상자와 일치한다.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척도: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 척도(Bandura, 1995)는 모두 5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취 효능감(self-efficacy for academic achievement), 사회적 자원활용 효능감(self-efficacy in enlisting social resources), 자기조절 학습효능감(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여가시간 활용 효능감(self-efficacy for leisure time skill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자기규제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주위사람 기대일치 효능감(self-efficacy to meet other's expectations), 사회적 효능감(social self-efficacy), 자기주장(self-assertive efficacy), 부모 및 주변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self-efficacy for enlisting parental and community support)에 관한 모두 9개 하위영역이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이탈 척도: 도덕적 이탈척도는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1996b)가 개발한 것으로 8개의 하위영역 각각에 4문항씩 모두 36문항에 3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각회전에 의한 주축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지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외 타인을 비난받을 만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친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치거나 떠미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별레같이 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요인은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advantageous comparison & distortion of injurious consequences)’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나쁜 행동과 비교해서, 그리고 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에

비하면 나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짹찌거리 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요인은 ‘책임감의 분산과 전이(diffusion and 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로 책임감을 다른 압력을 가진 것으로 대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과정이다. ‘만약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의 비행이라면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다’, ‘친구의 압력에 못 이겨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곽금주, 1998; Kwak & Bandura, 1998).

비행 척도: 비행 척도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된 척도(곽금주, 문은영, 1993, 1995)를 사용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화할 수 있으며, 거짓말, 도둑질, 방화, 음주, 약물 사용등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

표 1. 각 척도의 신뢰도

변 인	Alpha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80
사회자원활용	.73
자기조절학습	.88
여가시간활용	.78
자기규제	.81
기대일치	.74
사회적	.67
자기주장	.66
지지	.61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당화	.72
이득비교/결과왜곡	.65
책임감 분산/전이	.55
우울	
우울	.91
비행	
가벼운 비행	.94
심한 비행	.87

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하나는 가벼운 비행으로, ‘어른들에게 대들거나 반항해 본 적이 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본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들이었다. 심한비행으로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성폭행이나 강간을 해 본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우울 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는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곽금주, 1995).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유용한 것으로,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가 표 1에 있다.

결 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9개 영역과 도덕적 이탈의 3개 영역 그리고 우울과 비행에 대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각 변인 간의 상관은 표 3에 있다.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의 하위영역중에서 우울과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을 알아보기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전체, 남녀별, 연령별(중학생과 고등학생)로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우울에 설명력이 큰 변인은 기대일치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도덕적 이탈 영역), 지지 효능감, 자기규제 효능감 순이었다. 비행중 가벼운 비행에는 자기규제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도덕적 이탈 영역), 사회적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이득비교/결과왜곡(도덕적 이탈 영역), 여가시간활용 효능감, 부모 및 주변 사람의 지지 효능감 순으로, 심한 비행에는 자기규

표 2. 측정변인의 평균(표준편차)

변 인	전체	남자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3.85 (1.03)	3.83 (1.00)	3.87 (1.05)	3.81 (1.09)	3.89 (.96)
사회지원활용	3.94 (1.10)	3.85 (1.08)	4.04 (1.12)	3.92 (1.14)	3.96 (1.06)
자기조절 학습	3.73 (1.00)	3.61 (.96)	3.86 (1.03)	3.76 (1.07)	3.70 (.93)
여가시간활용	3.86 (1.09)	3.81 (1.03)	3.91 (1.14)	3.92 (1.12)	3.79 (1.06)
자기규제	5.05 (1.14)	4.99 (1.05)	5.11 (1.22)	5.12 (1.17)	4.98 (1.11)
기대일치	4.03 (1.05)	3.93 (1.01)	4.13 (1.08)	4.00 (1.10)	4.07 (1.00)
사회적	4.28 (1.13)	4.14 (1.11)	4.42 (1.13)	4.20 (1.19)	4.36 (1.06)
자기주장	4.18 (1.09)	4.17 (1.06)	4.20 (1.13)	4.17 (1.07)	4.19 (1.11)
지지	3.64 (1.14)	3.60 (1.11)	3.69 (1.17)	3.70 (1.19)	3.59 (1.09)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당화	2.09 (.37)	2.12 (.36)	2.05 (.36)	1.99 (.35)	2.18 (.35)
이득비교/결과왜곡	1.46 (.28)	1.46 (.28)	1.42 (.27)	1.46 (.27)	1.46 (.28)
책임감 분산/전이	2.06 (.34)	2.03 (.36)	2.09 (.32)	2.00 (.37)	2.11 (.31)
우울					
우울	1.49 (.76)	1.42 (.70)	1.57 (.81)	1.35 (.72)	1.63 (.76)
비행					
가벼운 비행	1.18 (.77)	1.39 (.75)	.97 (.73)	1.03 (.65)	1.33 (.84)
심한 비행	.16 (.34)	.20 (.39)	.11 (.29)	.14 (.32)	.17 (.36)

표 3. 각 변인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우울	비행		
학업 성취	사회 자원 활용	자기 조절 학습	여가 시간 활용	자기 규제	기대 일치	사회적 지지	자기 주장	도덕적 정당화	이득 비교	책임 분산	우울	가벼운 비행	심한 비행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1.00**														
사회자원활용	.56**	1.00**													
자기조절 학습	.79**	.58**	1.00**												
여가시간활용	.50**	.46**	.54**	1.00**											
자기규제	.44**	.35**	.46**	.22**	1.00**										
기대일치	.64**	.60**	.69**	.51**	.49**	1.00**									
사회적	.47**	.55**	.52**	.60**	.21**	.56**	1.00**								
자기주장	.49**	.52**	.53**	.48**	.35**	.55**	.61**	1.00**							
지지	.50**	.63**	.52**	.44**	.33**	.52**	.47**	.50**	1.00**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당화	-.00	-.00	-.09**	.00	-.19**	-.02	.10**	.04	-.11**	1.00**					
이득비교	-.18**	-.09**	-.19**	-.06	-.31**	-.18**	-.04	-.09**	-.13**	.33**	1.00**				
책임감분산	-.02	-.04	-.07*	-.04	-.07*	-.07*	.02	-.05	-.09**	.39**	.23**	1.00**			
우울															
우울	-.21**	-.22**	-.24**	-.15**	-.27**	-.28**	-.13**	-.18**	-.26**	.20**	.12**	.14**	1.00**		
비행															
가벼운 비행	-.19**	-.05	-.26**	.05	-.44**	-.21**	.11**	.00	-.14**	.36**	.33**	.15**	.36**	1.00**	
심한 비행	-.16**	-.08*	-.17**	.02	-.33**	-.19**	.03	-.01	-.04	.11**	.28**	.03	.18**	.59**	1.00**

* p < .05, ** p < .01

표 4. 우울과 비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변인	자기효능감	MultR	Rsq	Beta
우울	기대일치	.28	.08	-.28 *
	도덕적 정당화	.34	.12	.21 *
	지지	.36	.13	-.13 *
	자기규제	.37	.14	-.11 *
가벼운 비행	자기규제	.46	.21	-.46 *
	도덕적 정당화	.54	.29	.29 *
	사회적	.56	.32	.17 *
	자기조절학습	.59	.34	-.21 *
	이득비교	.60	.36	.14 *
	여가시간활용	.61	.37	.13 *
	자기주장	.61	.37	.10 *
	기대일치	.62	.38	-.10 *
심한 비행	자기규제	.33	.11	-.33 *
	이득비교	.38	.15	.19 *
	자기주장	.40	.16	.11 *
	학업성취	.41	.16	-.10 *
	여가시간활용	.42	.17	.11 *
	기대일치	.42	.18	-.10 *

* p < .001

제 효능감, 이득비교/결과와 곡(도덕적 이탈 영역), 여가시간활용 효능감, 학업성취 효능감, 부모 및 주변사람의 지지 효능감 순으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우울과 비행을 살펴본 결과, 우울 영역에 있어서 남자청소년에게서는 '주위사람의 기대일치에 대한 효능감' 영역과 '도덕적 정당화'가 가장 설명력이 컸으며 여자에서는 이외에 '부모 및 주변 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과 '자기규제 효능감' 순으로 그 효과가 있었다(표 5와 6). 비행의 두 요인 중, 가벼운 비행에서 남학생 집단은 '자기규제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여가시간활용 효능감', '부모 및 주변 사람의 지지 효능감'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고, 여자집단에서는 이외에 '사회자원활용에 대한 효능감'과 '주위사람 기대일치 효능감'이 설명력이

있었다. 심한비행에서 남자의 경우 ‘자기규제 효능감’,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여가시간 활용 효능감’, ‘학업성취 효능감’, ‘부모 및 주변사람의 지지 효능감’ 순이었으나 여자에게서는 ‘자기규제 효능감’,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자기주장 효능감’, ‘주위사람의 기대일치 효능감’ 순으로 설명력이 컸다(표 5, 표 6).

표 5. 우울과 비행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남자)

변인	자기효능감	MultR	Rsq	Beta
우울	기대만족	.21	.05	-.21 *
	도덕적 정당화	.30	.09	.21 *
가벼운 비행	자기규제	.39	.15	-.39 *
	사회적	.48	.23	.29 *
	도덕적 정당화	.54	.29	.25 *
	자기조절 학습	.56	.32	-.21 *
	여가시간활용	.58	.33	.16 *
	지지	.58	.34	-.10 *
심한 비행	자기규제	.35	.12	-.35 *
	이득비교	.38	.15	.17 *
	여가시간활용	.41	.17	.16 *
	학업성취	.44	.19	-.17 *
	지지	.45	.20	.12 *

* p < .001

표 6. 우울과 비행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여자)

변인	자기효능감	MultR	Rsq	Beta
우울	기대만족	.35	.12	-.35 *
	도덕적 정당화	.41	.17	.22 *
	지지	.44	.19	-.18 *
	자기규제	.45	.20	-.13 *
가벼운 비행	자기규제	.54	.29	-.54 *
	도덕적 정당화	.59	.35	.25 *
	사회적	.61	.37	.16 *
	자기조절 학습	.63	.40	-.20 *
	이득비교	.65	.42	.16 *
	사회자원활용	.65	.42	.11 *
	기대일치	.66	.43	-.13 *
	여가시간활용	.66	.44	.11 *
심한 비행	자기규제	.32	.10	-.32 *
	이득비교	.38	.14	.21 *
	자기주장	.39	.15	.09 *
	기대일치	.41	.17	-.18 *

* p < .001

연령별로 보면 우울의 경우 중학생에서는 ‘부모 및 주변 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 ‘책임감 분산’ (도덕적 이탈영역) ‘자기규제 효능감’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고등학생에서는 ‘부모, 주위 사람의 기대 일치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 ‘자기규제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순으로 그 설명력이 컸다(표 7, 표 8). 가벼운 비행의 경우, 중학생에서는 ‘자기규제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이득비교/결과왜곡(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여가시간 활용 효능감’ 순으로, 고등학생에서는 ‘자기규제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사회적 효능감’, ‘이득비교/결과왜곡(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주위사람 기대에 관한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여가시간 활용 효능감’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심한비행의 경우, 중학생에서는 ‘자기규제 효능감’,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여가시간 활용 효능감’, ‘학업성취 효능감’ 순으로, 고등학생에서는 ‘자기규제 효능감’,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자기주장 효능감’, ‘주위사람의 기대일치 효능감’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표 7, 표 8).

표 7. 우울과 비행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중학생)

변인	자기효능감	MultR	Rsq	Beta
우울	지지	.34	.12	-.27 ***
	책임감 분산	.37	.13	.13 **
	자기규제	.39	.15	-.14 **
가벼운 비행	자기규제	.42	.17	-.28 ***
	도덕적 정당화	.47	.22	.14 **
	이득비교	.49	.24	.16 ***
	자기조절 학습	.50	.25	-.35 ***
	사회적	.54	.29	.19 ***
	여가시간활용	.56	.31	.17 **
심한 비행	자기규제	.29	.08	-.23 ***
	이득비교	.33	.11	.17 ***
	여가시간활용	.35	.12	.17 **
	학업성취	.36	.13	-.12 *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우울과 비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고등학생)

변인	자기효능감	MultR	Rsq	Beta
우울	기대만족	.28	.08	-.17 **
	도덕적 정당화	.33	.11	.14 **
	자기규제	.34	.12	-.13 **
	사회적	.35	.13	-.10 *
가벼운 비행	자기규제	.50	.25	-.35 ***
	도덕적 정당화	.57	.32	.18 ***
	사회적	.59	.35	.16 **
	이득비교	.62	.38	.16 ***
심한 비행	기대일치	.63	.39	-.14 **
	자기주장	.64	.41	.15 **
	자기조절 학습	.64	.41	-.16 **
	여가시간 활용	.65	.42	.13 **
심한 비행	자기규제	.37	.14	-.29 ***
	이득비교	.43	.18	.21 ***
	자기주장	.45	.20	.20 ***
	기대일치	.46	.22	-.15 **

* $p < .05$, ** $p < .01$, *** $p < .001$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영역에서는 ‘주위사람의 기대일치 효능감’이, 도덕적 이탈에서는 ‘도덕적 정당화’ 요인이었다. 즉 주위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킬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 친구 등과의 의존성이 높아, 주변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할 경우 무기력하고 우울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한국청소년이 지난 입시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외에 여자에게서는 ‘부모 및 주변 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과 ‘자기규제 효능감’ 또한 우울에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이 효능감들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여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자기규제 효능감’은 비행에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

다. 이것은 여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자아중심성)이 남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한다는 꽈금주와 문은영(199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때 증가하는 심리적 갈등이 성별에 따라 달리 표출되어 여학생에서는 우울로, 남학생에서는 비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비행의 2개 요인인 가벼운 비행과 심한비행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 남녀집단, 중고집단 모두에서 자기규제 효능감이었다. 이는 강한 자기규제 효능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약물, 성행동, 비행을 회피하거나 덜 참여 한다는 Kwak & Bandura (1998)의 연구와 꽈금주(1998)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음주, 약물, 성행동, 일탈행동과 같은 위험 행동에 휩쓸리는 유혹과 친구의 압력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신의 효능감이 비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을 설명하는 변인 중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주요 결과로 남자 청소년은 여가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효능감이 클수록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효능감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였다. 반면 여자는 자기 주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위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데 대한 효능감이 낮을수록 심각한 비행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연령별로 볼 때,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 중 중학생에서는 ‘부모 및 주변 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이 설명력이 크나, 고등학생에서는 ‘기대일치 효능감’이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다. 중학생에서는 주변 사람의 지지가 아직 중요하나, 고등학생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 보다는 주변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감이 우울에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부모와 교사의 지원이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높은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김의철, 박영신, 꽈금주, 1998)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고등학생에서는 부모나 주변사람의 기대를 만족

시키는 효능감이 우울뿐 아니라 가벼운 비행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은 여가시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효능감을 지닐수록, 그리고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낮을수록 심한비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6학년에서 8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낮은 학업성취 효능감이 이탈 행동과 관련있다는 연구(Bandura 등, 1996)를 지지 한다. 특히 남자집단에서 그리고 중학교 집단에서 학업성취 효능감과 심한 비행 간의 부적 관계가 높았다. 이에비해 고등학생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감을 가질수록, 그리고 주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효능감이 낮을수록 심한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와 비행의 관련성은 중학생과 같은 비교적 어린 연령에서 높으며, 고등학생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효능감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비행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 영역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좀더 세부적인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과 성별 모두에 걸쳐, 비행에 가장 설명력이 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은 ‘자기규제 효능감’ 영역이었다. 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도덕적 정당화’ 영역이 가벼운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 이었으며,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은 심한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친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와 같은 도덕적 정당화는 가벼운 비행에 영향을 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은 때리는 것에 비하면 나쁜 일이 아니다’와 같은 비교나 해로운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은 더 심각한 비행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법을 모색한다면 우울이나 비행을 예방 중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Gilchrist와 Schinke(1985)에 의해 개발된 전형적인 자기규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훈련은 청소년들에게 약물의 효과에 대해 알려주고 약물사용을 위한 개인간, 사회적 압력을 조절하는 대인간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자기개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 곽금주 (1998).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I):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1.
- 곽금주·문은영 (1993). 청소년기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곽금주·문은영 (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II): 청소년기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김의철 (1997). *한국청소년문화: 연구모형*. 한국정신문화 연구원편,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연구논총 97-8)*.
- 김의철·박영신·곽금주 (1998). 한국청소년의 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박영신 (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 신념의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편,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연구논총 97-8)*.

- Andrus, B. C. (1969). *The infamous of Nuremberg*. London: Fravin.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available from A. Bandura, Stanford University).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a).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s.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 Pastorelli C. (1996b).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c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Darley, J. M., Klosson, E. C., & Zanna, M. P. (1978). Intentions and their contexts in the moral judgements of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49, 66-74.
- Diener, E., Dineen, J., Endresen, K., Beaman, A. L., & Fraser, S. C. (1975). Effects of altered responsibility, cognitive set, and modeling on physical aggression and deindivid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28-337.
- Gilchrist, L. D., & Schinke, S. P. (1985). *Preventing social and health problems through life skills traini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Kwak, K. & Bandura, A. (1998). *The roles of a self-efficacy and moral disengagement in antisocial conduct*. Presented at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Hongkong.

Factors Influencing the Culture of Korean Adolescents : Depression and Delinquency

Keumjoo Kwak¹, Uichol Kim² and Young-Shin Park³

¹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san College

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³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was examined to explore the factors in the subdomains of self-efficacy and moral disengagement explaining adolesc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A total of 1146 students were administered multifaceted questionnaires measuring self-efficacy, moral disengagement, depression and antisocial conduct. As results, 'self-efficacy to meet other's expectations' and 'moral justifi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explaining depression. 'Self-regulatory efficac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to antisocial behavior. The difference of age and gender were revealed in the variables of affecting the depression, trivial delinquency and severe delinquency. In compared with other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taiily explained and discussed.